2024년 4월 19일

채권 Analyst 임재균, CFA
02-6114-2952 jk.lim@kbfg.com
연구원 이정욱, CFA
02-6114-2089 junguk@kbfg.com

더 많은 리포트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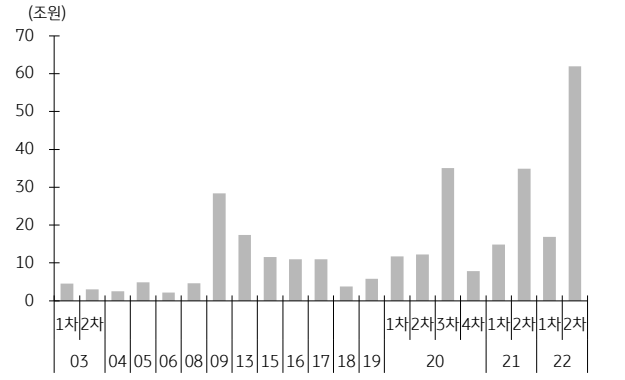
KB Bond

지금 채권을 매수해야 하는 이유 – 한국 관점

추가 상승에도 채권을 사야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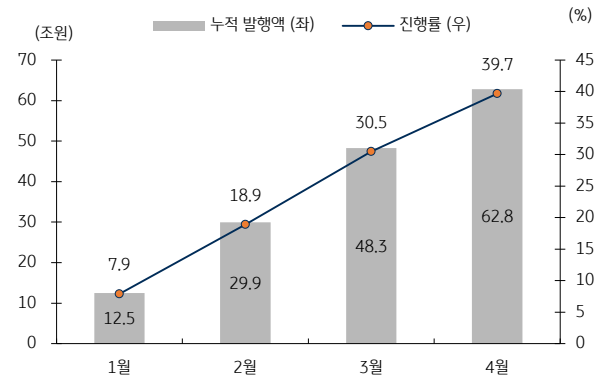
- 연준의 금리인하가 지연되면서 한은의 금리인하도 지연되고 있는 점은 추가적인 금리 상승 요인. 다수의 전문가들은 원화가 올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 더욱이 총선 이후 추경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2022년 5월 이후 추경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은 채권 시장의 부담 요인. 아직까지 채권 시장이 추경을 크게 반영하고 있지 않은 만큼 추경이 본격화된다면 공급에 대한 우려는 나타날 수 있음. 또한, 이번에 추경이 실시된다면 민생 지원금으로 향후 물가 둔화를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 경제 부총리는 경기 침체가 아닌 만큼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거론되고 있는 추경 규모는 13조원. 적은 규모는 아니지만, 팬데믹 이후 경제 악화에 대응해 대규모 추경을 결정했던 점을 감안하면 크지 않은 규모. 정부의 올해 예산 지출 계획 (656.6조원)과 비교해도 2% 수준으로 크지 않음. 또한, 4월까지 발행됐거나 발행 예정인 국채의 규모는 62.8조원으로 올해 국채 발행 예정액의 39.7%. 정부가 전체 국채 발행액 중 상반기 최대 60%까지 발행할 것으로 밝힌 가운데, 하반기 국채 발행 부담은 크지 않음. 기재부가 4월은 모집 방식 비경쟁 인수를 통한 국고채 발행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수급 관점에서 긍정적
- 원화 약세도 한은의 금리인하 시점을 지연시킨다는 점은 부정적. 하지만, 2월 금통위 이후 5월 소수 의견, 7월 인하 시나리오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후퇴와 높아진 국내 물가 그리고 원화 약세 등으로 상당히 힘을 잃음. 한은의 상반기 인하 기대는 상당히 후퇴했으며, 인하 폭도 기존 최대 3차례에서 2차례 혹은 1차례까지도 축소되면서 상당 부분 후퇴. KB증권은 2024년 연간전망에서 (2023/11/6) 한은이 하반기에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연초까지 인하에 대해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하지만, 최근 KB증권과 시장의 전망을 비교하면 KB증권의 금리인하 전망은 크게 보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 KB증권은 한은의 금리인하 시점을 기존 빨라야 8월에서 11월로 수정 (4/17)
- 금리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후퇴하는 가운데, 원화 약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을 높일 수 있음. 원화는 3개월 이동 평균의 2 표준편차를 크게 벗어난 상황. 국내의 해외 투자 등으로 원화의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졌을 가능성을 고려해도 원화의 약세 폭은 큰 상황. 빠르게 1,400원까지 근접하면서 이전 고점인 1,450원을 터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기 전 정부는 구두 개입을 통해 원화의 약세를 방어. 한은 총재도 지난 4월 금통위까지만 해도 원화의 약세는 글로벌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언급했지만,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일정 중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원화의 변동성은 과하고 필요하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로 원화가 추가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 외환 당국이 현재의 환율 수준에 대해 개입할 의지를 보여준 만큼 그 폭은 크지 않을 것.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연준의 피봇 시점에 달러 강세 압력이 해소되면서 원화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환을 헤지하지 않고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 하락과 환 차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
- 미국은 지난 10일 소비자물가 그리고 15일 소매판매 발표 이후 금리 급등. 지표가 예상을 상회한 것은 맞지만, 금리 상승 폭을 고려하면 미 국채의 경우 손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다만, 4월 이후 미 금리에 연동해 한국 금리도 상승했지만, 금리인하 폭에 대한 기대가 미국보다 크지 않았던 만큼 금리 상승폭도 크지 않았음. 작년 말 대비 최대 미 국채 2년은 73.6bp, 10년 금리는 78.8bp 상승했지만, 한국 국채 3년은 32.1bp, 10년은 44.9bp 상승. 이를 고려하면 한국 채권 시장은 손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 향후 손절이 나올 경우 한국 금리는 급등할 수 있지만,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손절성 매물은 나오기 쉽지 않다고 판단.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2년 레고랜드 사태를 경험하면서 채권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투자. 더욱이 국내 레포 금리는 올해 들어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어 레포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이는 단기적이며 결국 수익이 발생한다고 판단할 것

그림 1. 과거 추경 규모



자료: 기재부, KB증권

그림 2. 올해 국채 발행 규모 및 진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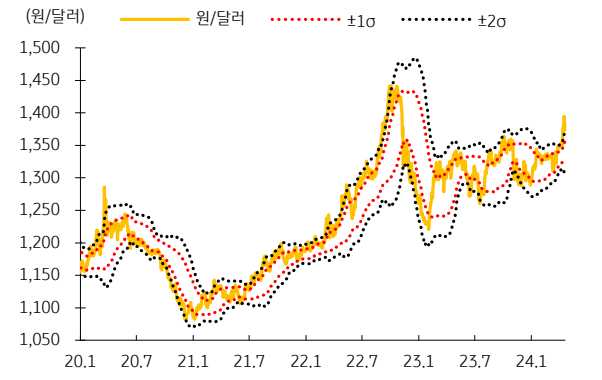


자료: 기재부, KB증권

그림 3. 선도 시장에 반영된 한은의 금리인하 기대는 상당히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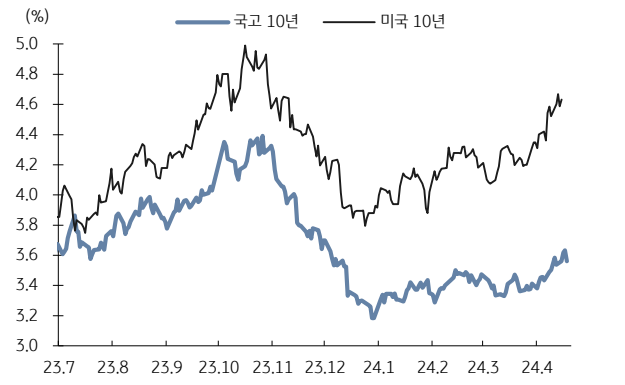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B증권

그림 4. 환율 추이 및 90일 이동평균과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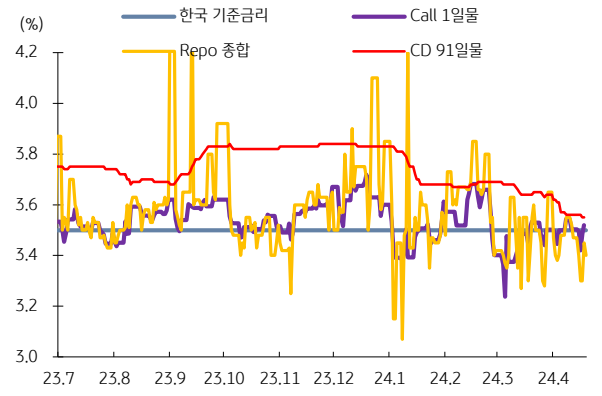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B증권

그림 5. 작년말 대비 올해 최대 금리 변동 폭



자료: 인포맥스, Bloomberg, KB증권

그림 6. 단기 금리는 안정적



자료: 인포맥스, KB증권

표 1. 주요 중앙은행 인사들 발언

국가	날짜	이름	직책	발언
미국	4/15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 여전히 올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4/15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은 상당하지만 아직은 미흡하며 목표에 도달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대응 가능 - 긴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긴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최악 - 견조한 경제 성장세, 여전히 강한 노동시장, 목표치를 상회하는 물가 상황에서 금리 인하 시급성은 없음 - 중립금리가 상승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중립금리는 0.5%에서 1% 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 2% 물가 목표를 변경하는 것을 지지할 수 없음
	4/16	제퍼슨	연준 이사	- 최근 일자리 증가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는 모두 예상을 상회 - 앞으로의 데이터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끈적할 것이라고 시사한다면, 현재의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 - 기본 전망은 강한 고용 시장이 유지되고 수요와 공급이 계속 균형을 이루는 것이며 현재 수준의 정책 금리로 인플레이션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유지 - 2월과 3월 소매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24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은 2023년 4분기와 비교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4/16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 미국 잠재 성장률은 약 2% - AI 기업은 큰 이슈로 인식되고 있으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의 역할은 불분명함
	4/16	파월	연준 의장	- 현재 상황은 과열된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일반적인 사례가 아님 - 최근의 데이터는 올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진전이 없는 것을 나타냄 - 연준은 작년 하락에 과민 반응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취했지만, 최근 데이터는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함 -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필요한 만큼 장기간 동안 현재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음 - 고용시장은 강세 속에서도 더 나은 균형으로 나아가고 있고 광범위한 임금 압력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음 - 제약적인 정책이 작동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
	4/17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 올해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약간 높으며 인플레이션이 하향 궤도에 있다고 확신하고 싶음 - 조치를 취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지켜봐야 하며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 통화 정책은 좋은 위치에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음 - 언젠가는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할 것이며 고용 시장이 악화되면 금리를 낮출 수 있음 - 서둘러 정책을 완화할 필요는 없으며 연준의 이중책무에 대한 위험을 주시하고 있음
	4/17	보우만	연준 이사	-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둔화되어 왔고, 아마도 정체되었을 것 - 현재의 통화 정책은 제약적이며,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제약적인지 알 수 있음
	4/18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 연준의 2% 물가 목표는 올바른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는 것은 연준에게 매우 중요 - 통화 정책은 좋은 위치에 있으며, 금리 인하가 시급하다고 느끼지 않음 - 데이터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면 연준은 인상할 것이나 연준의 금리 인상은 기본 예상이 아님
	4/18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 물가는 너무 높으며,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음 - 물가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경로는 사람들의 예상보다 느리고 울퉁불퉁할 것 - 일자리와 임금이 계속 유지된다면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 전망에 불황은 없으며 연말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음
한국	4/16	조윤제	금통위원	- 한은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주 목표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단은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 대비 제한돼 있음 -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아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님 -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물가를 안정시키는게 가장 중요
	4/17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의 변동성은 다소 과도 - 환율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고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음 - 미국 통화정책 변화가 신흥시장 환율에 주는 영향은 1년 반 전에 비해 일시적일 것

자료: 언론보도 종합, KB증권

표 1. 주요 중앙은행 인사들 발언 (계속)

국가	날짜	이름	직책	발언
유로존	4/15	심쿠스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총재	- 금리인하는 7월에도 가능하며, 7월 결정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 여부 결정될 것 - 지정학적 충격은 6월 금리 인하를 취소시킬 수 있으나 올해 세 차례 이상 금리 인하 가능성은 50% 이상임
	4/15	카지미르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	-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하락을 감안할 때 ECB는 6 월에 금리를 인하 할 수 있으며, 제약적인 환경은 점진적으로 완화 될 수 있음 - ECB는 정책의 유연성을 유지해야 하며 6월 이후 어떤 정책 경로도 약속하지 않음
	4/16	레인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	-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조치에 비해 국내 인플레이션과 관련하여 훨씬 적은 진전이 있었음 - 임금 압력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2%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률의 둔화가 필요 - 헤드라인 물가는 단기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
	4/16	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	- 현재 미국과 유럽 경제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자연스럽게 우리는 앞으로 다른 종류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6월에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수렴하는 것이 확인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음
	4/16	라가르드	ECB 총재	- ECB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을 관찰하고 있음 - 추가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완화할 때가 될 것
	4/16	빌레로이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 임금 인플레이션 급등을 예상하지 않으며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릴 것 - 6월 회의 이후, 올해와 내년에 추가 인하가 있어야만 할 것 - 중동의 지정학적 문제가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인하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음
	4/17	시폴로네	ECB 집행이사	- 인플레이션은 내년에 2% 경로로 회복되어 2025년 중반까지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 6월과 7월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통해 물가 목표에 대한 신뢰도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면 2023년에 부과된 일부 제약적인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 - 중동 분쟁이 에너지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리스크
	4/17	나겔	독일 중앙은행 총재	- 유로존의 물가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음 - 내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하고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음 - 2024년 독일 경제의 소폭 성장을 예상함
	4/17	센테노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	-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며 금리 인하 횟수는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 - 6월의 첫 번째 인하는 현재로서는 매우 가능성이 높으며, 6월 이후에는 데이터, 특히 성장과 고용을 살펴볼 것
	4/17	라가르드	ECB 총재	- 외환 움직임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우리는 환율을 모니터링 함 - 우리는 미세한 회복 조짐을 보고 있으나, 유럽의 성장세는 미국보다 훨씬 느린 평범한 수준임
	4/17	바슬레	슬로베니아 중앙은행 총재	- 디스인플레이션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연말까지 예금 금리가 3 %에 훨씬 가까워 질 것으로 보고 있음
	4/18	귄도스	ECB 부총재	- 인플레이션은 올해 더 하락했으며 중기적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 - 인플레이션 조건이 충족되면 현재 통화 정책의 제약 수준을 낮추는 것이 적절할 것
	4/18	파네타	ECB 집행이사	- 디스인플레이션 진행이 진전 및 지속되고 있으며, ECB는 제약적인 정책 수준을 고려할 것
영국	4/16	롬바델리	BOE 위원	- 고용 시장에서 일부 완화되는 모습 관찰 - 헤드라인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음
	4/17	그린	BOE 위원	- 영국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라스트 마일이 가장 어려움
	4/18	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	- 제약적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실물경제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올해 성장 전망에 영향 - 주요 금리 수준은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더 이상 현재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봄 -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수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2% 목표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6월에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하고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4/18	베일리	BOE 총재	- 서비스 물가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다음 달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영국 경제는 2월 전망에 부합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영국은 국채 부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자료: 언론보도 종합, KB증권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일정

	Mon	Tue	Wed	Thu	Fri
	15	16	17	18 미국 베이지북, 일본 4차 춘투 임금 협상	19 Blackout (20~), 조윤제, 서영경 금통위원 임기 만기 (20)
국채입찰	10:00 통안채 91일 입찰 (₩0.7조, 2.40배, 1.26배)	10:40 국고채 명목 교환 (₩0.5조, 3.04배, 3.21배)	10:00 통안채 3년 입찰 (₩1.2조, 2.10배, 2.29배)	02:00 미 국채 20년 입찰 ($130억, 2.82배, 2.79배)	02:00 미 국채 5년 TIPS 입찰 ($230억, 2.24배, 2.55배)
	10:40 국고채 10년 입찰 (₩1.6조, 3.17배, 3.16배)				
	10:40 국고채 10년 입찰 (₩1.0조, 3.36배, n/a)				
경제지표	18:00 유로존 2월 산업생산 MoM (0.8%, 0.8%, -3.2%)	06:00 한국 3월 수입물가지수 MoM (n/a, 0.4%, 1.2%)	15:00 영국 3월 CPI YoY (3.1%, 3.2%, 3.4%)	10:30 호주 3월 실업률 (3.9%, 3.8%, 3.7%)	08:30 일본 3월 국내 CPI 신선식품 제외 (2.7%, 2.6%, 2.8%)
	21:00 미국 4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5.2, -14.3, -20.9)	06:00 한국 3월 수출물가지수 MoM (n/a, 0.4%, 1.4%)	15:00 영국 3월 핵심 CPI YoY (4.1%, 4.2%, 4.5%)	21:30 미국 4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2.0, 15.5, 3.2)	
	21:30 미국 3월 소매판매 MoM (0.4%, 0.7%, 0.6%)	11:00 중국 1분기 GDP QoQ (1.5%, 1.6%, 1.0%)		21:30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5만건, 21.2만건, 21.1만건)	
	23:00 미국 4월 NAHB 주택시장지수 (51, 51, 51)	11:00 중국 3월 광공업생산 YoY (6.0%, 4.5%, n/a)		23:00 미국 3월 컨퍼런스보드 경기 선행지수 (-0.1%, -0.3%, 0.1%)	
		11:00 중국 3월 소매판매 YoY (4.8%, 3.2%, n/a)		23:00 미국 3월 기존주택매매 MoM (-4.1%, -4.3%, 9.5%)	
		15:00 영국 2월 3개월 평균 주간 임금 YoY (5.5%, 5.6%, 5.6%)			
		18:00 독일 4월 ZEW 서베이 예상 (n/a, n/a, 31.7)			
		21:30 미국 3월 건축허가 MoM (-0.9%, -4.3%, 1.9%)			
		21:30 미국 3월 주택착공건수 MoM (-2.4%, -14.7%, 10.7%)			
		22:15 미국 3월 광공업생산 MoM (0.4%, 0.4%, 0.1%)			
	22	23	24	25	26 BOJ 통화정책회의
국채입찰	10:00 통안채 91일 입찰 (₩0.7조, n/a, 2.40배)	10:40 국고채 20년 입찰 (₩0.7조, n/a, 3.52배)	02:00 미 국채 2년 입찰 ($690억, n/a, 2.62배)	02:00 미 국채 2년 FRN 입찰 ($300억, n/a, 3.22배)	02:00 미 국채 7년 입찰 ($440억, n/a, 2.61배)
	10:40 국고채 5년 입찰 (₩2.3조, n/a, 3.40배)		11:00 통안채 1, 2, 3년 모집 (₩0.8~1.0조, n/a, n/a)	02:00 미 국채 5년 입찰 ($700억, n/a, 2.41배)	
경제지표	09:00 한국 4월 수출 20일 YoY (n/a, n/a, 11.2%)	06:00 한국 3월 PPI YoY (n/a, n/a, 1.5%)	06:00 한국 4월 소비자심리지수 (n/a, n/a, 100.7)	06:00 한국 5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 (n/a, n/a, 73)	08:30 일본 4월 도쿄 CPI 신선식품 제외 YoY (n/a, n/a, 2.4%)
	09:00 한국 4월 수입 20일 YoY (n/a, n/a, -6.3%)	16:30 독일 4월 HCOB 제조업 PMI (n/a, n/a, 41.9)	10:30 호주 3월 CPI YoY (n/a, n/a, 3.4%)	08:00 한국 1분기 GDP QoQ 속보치 (n/a, n/a, 0.6%)	17:00 유로존 1년 CPI 예상 (n/a, n/a, 3.1%)
	10:15 중국 1년 만기 LPR (3.45%, n/a, 3.45%)	17:00 유로존 4월 HCOB 제조업 PMI (n/a, n/a, 46.1)	17:00 독일 4월 IFO 기업환경 (n/a, n/a, 87.8)	15:00 독일 5월 Gfk 소비자 기대지수 (n/a, n/a, -27.4)	17:00 유로존 3년 CPI 예상 (n/a, n/a, 2.5%)
	10:15 중국 5년 만기 LPR (3.95%, n/a, 3.95%)	17:00 유로존 4월 HCOB 서비스업 PMI (n/a, n/a, 51.5)	21:30 미국 3월 내구재주문 (2.5%, n/a, 1.3%)	21:30 미국 1분기 GDP QoQ 속보치 (2.0%, n/a, 3.4%)	21:30 미국 3월 PCE 디플레이터 MoM (0.3%, n/a, 0.3%)
	21:30 미국 3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 (n/a, n/a, 0.05)	17:00 유로존 4월 HCOB 종합 PMI (n/a, n/a, 50.3)	21:30 미국 3월 운송제외 내구재주문 (0.2%, n/a, 0.3%)	21:30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n/a)	21:30 미국 3월 핵심 PCE 디플레이터 MoM (0.3%, n/a, 0.3%)
	23:00 유로존 4월 소비자기대지수 (n/a, n/a, -14.9)	22:45 미국 4월 S&P 제조업 PMI (n/a, n/a, 51.9)		23:00 미국 3월 미결주택 매매 MoM (n/a, n/a, 1.6%)	(27일) 10:30 중국 3월 산업생산 YoY (n/a, n/a, n/a)
		22:45 미국 4월 S&P 서비스업 PMI (n/a, n/a, 51.7)			
		22:45 미국 4월 S&P 종합 PMI (n/a, n/a, 52.1)			
		23:00 미국 3월 신규주택매매 MoM (2.0%, n/a, -0.3%)			
	29 일본 휴장	30 금통위 의사록	5/1 미국 분기 차환 계획, 한국, 유럽, 중국 휴장	5/2 FOMC, 중국 휴장	5/3 중국, 일본 휴장
국채입찰	10:00 통안채 91일 입찰 (₩0.7조, n/a, n/a)				
경제지표	18:00 유로존 4월 경기기대지수 (n/a, n/a, 96.3)	08:00 한국 3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3.1%)	09:00 한국 4월 무역수지 (n/a, n/a, $42.8억)	08:00 한국 4월 CPI YoY (n/a, n/a, 3.1%)	18:00 유로존 3월 실업률 (n/a, n/a, 6.5%)
	21:00 독일 4월 CPI YoY (n/a, n/a, 2.2%)	08:00 한국 3월 소매판매 MoM (n/a, n/a, -3.1%)	09:00 한국 4월 수출 YoY (n/a, n/a, 3.1%)	08:00 한국 4월 핵심 CPI YoY (n/a, n/a, 2.4%)	21:30 미국 4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n/a, n/a, 30.3만명)
		10:30 중국 4월 종합 PMI (n/a, n/a, 52.7)	09:00 한국 4월 수입 YoY (n/a, n/a, -12.3%)	09:30 한국 4월 S&P 제조업 PMI (n/a, n/a, 49.8)	21:30 미국 4월 실업률 (n/a, n/a, 3.8%)
		10:30 중국 4월 제조업 PMI (n/a, n/a, 50.8)	21:15 미국 4월 ADP 민간부문 고용 (n/a, n/a, 18.4만건)	21:30 미국 3월 무역수지 (n/a, n/a, -$689억)	21:30 미국 4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MoM (n/a, n/a, 0.3%)
		10:30 중국 4월 서비스업 PMI (n/a, n/a, 53.0)	23:00 미국 3월 JOLTS 구인공고수 (n/a, n/a, 875.6만건)	21:30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n/a)	23:00 미국 4월 ISM 서비스업 PMI (n/a, n/a, 51.4)
		10:45 중국 4월 차이신 제조업 PMI (n/a, n/a, 51.1)	23:00 미국 4월 ISM 제조업지수 (n/a, n/a, 50.3)	23:00 미국 3월 제조업수주 (n/a, n/a, 1.4%)	
		18:00 유로존 4월 CPI YoY (n/a, n/a, 2.4%)			
		18:00 유로존 1분기 GDP QoQ 속보치 (n/a, n/a, 0.0%)			
		21:30 미국 1분기 고용비용지수 (n/a, n/a, 0.9%)			
		22:00 미국 2월 FHFA 주택가격지수 MoM (n/a, n/a, -0.1%)			
		22:00 미국 2월 S&P 코어로직CS 20개 도시 주택가격 MoM (n/a, n/a, 0.14%)			
		23:00 미국 4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n/a, n/a, 104.7)			

자료: 인포맥스, Bloomberg, 기획재정부, 한국 통계청, 미 재무부, KB증권

주: 한국시간 기준/국채입찰 (입찰금액, 응찰률 최근치, 응찰률 이전치)/경제지표 (예상치, 실제치, 이전치)/국채 응찰률은 가중평균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